

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

---

# 미국에 살고 있는 AAPI 성소수자 성인 인종의 교차점에 서있는 성소수자의 안녕

2021년 5월

---

Soon Kyu Choi  
Bianca D.M. Wilson  
Lauren Bouton  
Christy Mallory

## 요약

1,130 만명 이상의 성소수자(Lesbian, Gay, Bisexual, Transgender, LGBT) 성인이 미국에 살고 있다.<sup>i</sup> 그들은 전국 도처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의 일원이고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결과, 건강 상태, 생활 경험의 면에서 다양하다. 여러모로, 성소수자는 비-성소수자(non-LGBT)인 이들과 비슷하지만, 성적 지향(sexual orientation) 및 성별 정체성(gender identity)과 관련된 독특한 욕구와 경험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차이점도 보여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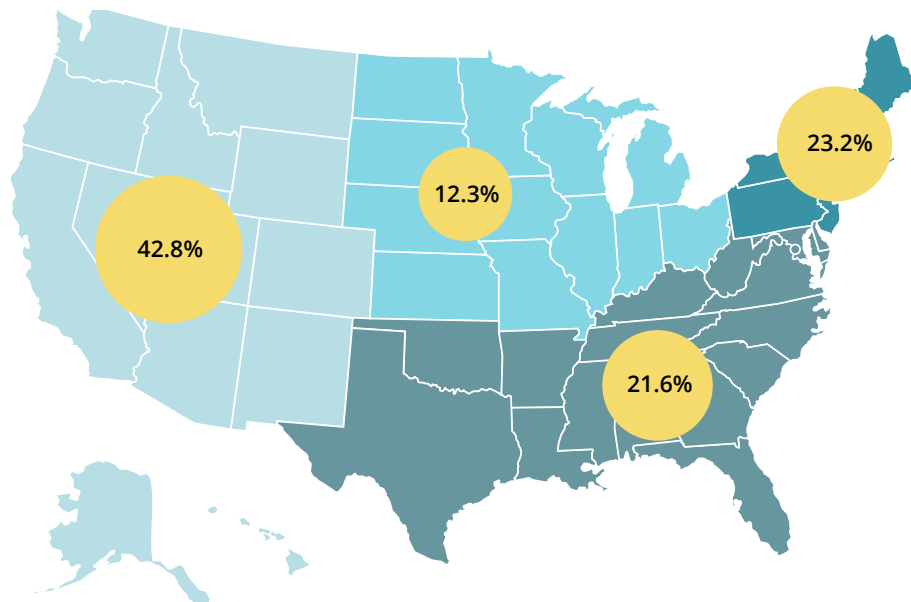
성소수자 성인의 약 40%는 유색인이고, 여기에는 아시아-태평양계 미국인(Asian American or Pacific Islander, AAPI)으로 정체화 하는 3%가 포함된다.<sup>ii</sup>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AAPI이자 성소수자로 스스로 정체화 하는 성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몇몇의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. 우리는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개요를 제시하고, 정신 및 신체 건강, 경제적 안녕, 사회문화적 경험 등 몇몇 주요한 안녕의 영역에 초점을 둔다. 이외에도, 우리는 AAPI 미국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차이점을 탐구하기 위해서, 이들 지표에 대해 AAPI 성소수자 성인과 비-성소수자 성인을 비교하였다. 또한, 몇몇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성별(gender)과 관련된 차이점을 탐구하기 위해 AAPI 성소수자 여성과 비-성소수자 여성, 그리고 AAPI 성소수자 남성과 비-성소수자 남성을 비교했다. 우리는 입수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가능한 경우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(Asian American, AA) 성소수자와 하와이 및 태평양 군도 출신(Native Hawaiian and Pacific Islander, NHPI) 성소수자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분석하였다.

이 보고서는 <인종의 교차점에 서있는 성소수자 안녕>이라는 더 큰 시리즈의 일부이고, 이 시리즈는 미국에 사는 각 인종적/민족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. 최종 비교 보고서는 성소수자 내의 인종적 집단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본다.

## 주요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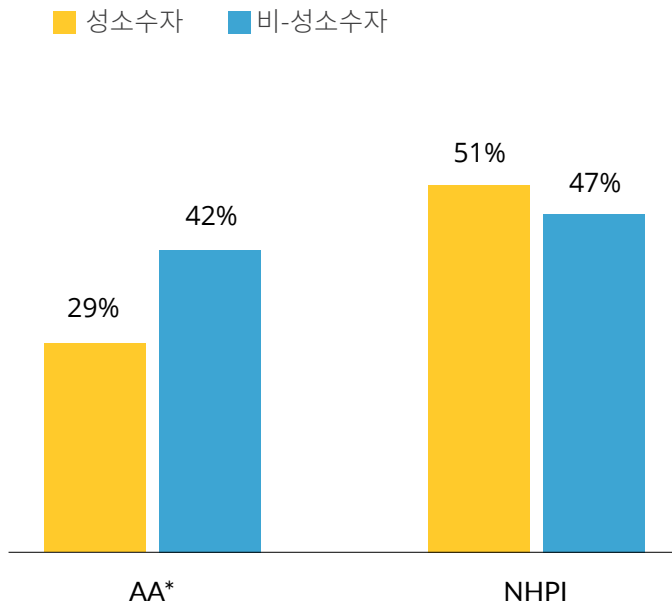
### 인구통계학적 특성

- 약 685,000명의 미국 성인은 AAPI 이자 성소수자라고 스스로 정체화 한다. 전체 AAPI 성인 중, 4.5%는 성소수자로 정체화 하고, 여기에는 AA 성인의 3.8%와 NHPI 성인의 8.8%가 포함된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. AAPI 성소수자 성인의 43%가 서부에 살고 있는데, 이는 북동부에 23%, 남부에 22%, 중서부에 12%가 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.



- AAPI 성소수자 성인 인구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인구보다 더 젊다. AAPI 성소수자 성인의 약 4분의 3(73%)이 35세 미만이고, 이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경우 56%인 것과 비교된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의 성별 구분은 여성이 51%와 남성이 49%로 대략 비슷하고, 이는 AA 성소수자 성인에서도 동일하다. NHPI 성소수자 성인의 성별 구분은 여성이 56%, 남성이 46%다.
- 전체 AAPI 성소수자의 다수(59%)는 25세 이상이고 대학 교육을 받았다. 하지만, AA 성소수자(70%)는 NHPI 성소수자(31%)에 비해 대학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. 이러한 격차는 AA 비-성소수자와 NHPI 비-성소수자 사이에도 존재한다.
- 대체로, AAPI 성소수자 성인은 AAPI 비-성소수자와 비슷한 비율로 군 복무를 했다. AAPI 성소수자 성인의 4% 및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5%가 재향 군인이다. NHPI 성인의 경우, 비-성소수자의 12%가 재향 군인인데, 이는 성소수자의 5%와 비교된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은 AAPI 비-성소수자 성인보다 종교가 없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, 다수의 AAPI 성소수자 성인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. AAPI 성소수자 성인의 16%는 천주교 신자이고, 5%는 이슬람 신자이며, 5%는 개신교 신자이고, 37%는 그 외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(94%) 및 AAPI 비-성소수자 성인(95%)의 압도적 다수는 도시 지역에서 산다.
-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사람들 중에서, AAPI 성소수자 성인의 약 60%는 이성 파트너가 있다. AAPI 여성(68%)은 AAPI 남성(55%)보다 이성 파트너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.
- AA 성인의 경우, 비-성소수자 성인(42%)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성소수자 성인(29%)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. NHPI 성소수자 성인(51%)은 NHPI 비-성소수자 성인(47%)과 비슷한 비율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.

#### 성소수자 정체성에 따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AA 및 NHPI 성인의 비율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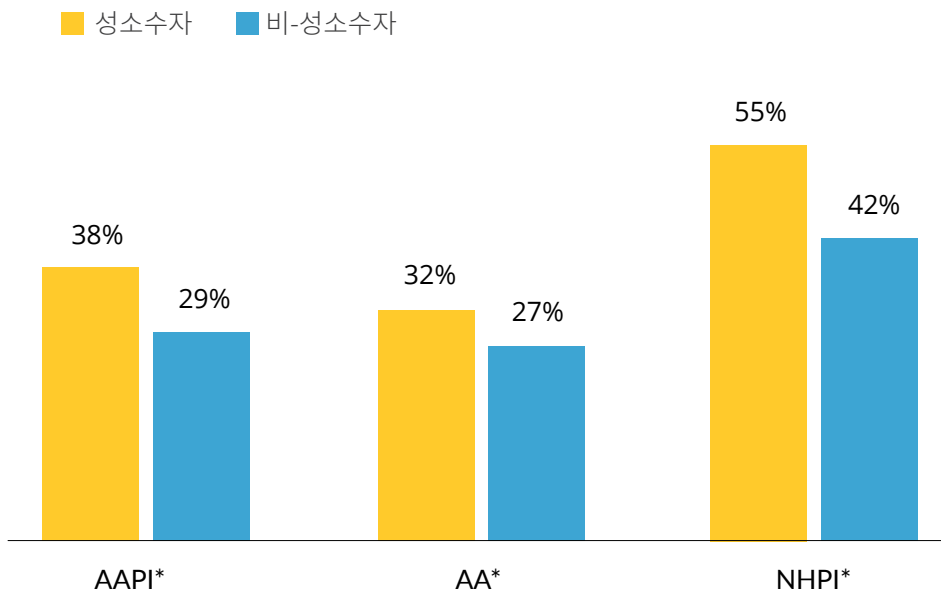


참조: \* 는 성소수자 성인 및 비-성소수자 성인에 대한 추정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.

## 경제적 특성

- AAPI 성소수자 성인은 AAPI 비-성소수자 성인보다 경제적 불안정성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의 약 5분의 1(21%)이 연간 \$24,000 미만의 가구 소득으로 살고 있는데, 이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15%와 비교된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은 AAPI 비-성소수자 성인보다 실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(6%에 비해 10%) 식품 불안정성(food insecurity)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(8%에 비해 16%). 이들 차이는 NHPI 성소수자 성인과 NHPI 비-성소수자 성인을 비교할 때 더 확연히 드러난다. NHPI 성소수자 성인의 14%가 실직 상태에 있는데 이는 NH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8%와 비교되고, NHPI 성소수자 성인의 40%가 식품 불안정성을 경험하는데 이는 NH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22%와 비교된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은 AAPI 비-성소수자 성인보다 저소득 가구(연방 빈곤 수준의 200% 미만)에서 살 가능성이 더 높다. AAPI 성소수자 성인의 38%는 저소득 가구에서 사는데 이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29%와 비교된다. 성소수자와 비-성소수자 모두 NHPI 성인은 AA 성인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살 가능성이 더 높다. NHPI 성소수자 여성의 64%를 포함해, NHPI 성소수자 성인의 절반 이상(55%)은 저소득 가구에 살고 있으며, NH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42%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에 살고 있다.

### 연방 빈곤 수준의 200% 미만에서 살고 있는 AAPI 성소수자 성인 및 비-성소수자 성인의 비율(%)



참조: \* 는 성소수자 성인 및 비-성소수자 성인에 대한 추정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.

##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

- 전체적으로, 그리고 모든 소집단에서, AAPI 성소수자 성인 및 비-성소수자 성인이 자신의 전반적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보고한 비율은 비슷하다. AAPI 성소수자 성인의 16% 및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12%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보고한다. 하지만, 성소수자와 비-성소수자 모두에서 AA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수의 NHPI 성인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보고한다. 추가적으로, AAPI 성소수자 여성(17%)이 비-성소수자 여성(12%)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지만, 이 차이는 높은 비율의 NHPI 여성(29%)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보고하는 것에서 비롯된다.

- AAPI 성소수자 성인의 5분의 1 이상(21%)이 우울증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7%와 비교된다. 여성 내에서, AAPI 성소수자 여성의 30%(및 AA 성소수자 여성 및 NHPI 성소수자 여성 모두의 30%)가 우울증을 진단받았고, 이는 전체 AAPI 비-성소수자 여성의 9%, AA 비-성소수자 여성의 9%, NHPI 비-성소수자 여성의 14%가 우울증을 진단받은 것과 비교된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은 AAPI 비-성소수자 성인보다 고위험 건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. AAPI 성소수자 성인 중에서 21%가 현재 흡연 중이고 7%가 폭음(heavy drinking)을 한다고 보고했는데, 이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에서 각각 11%와 2%인 것과 비교된다. 고위험 건강 행동의 비율은 NHPI 성인에서 특히 높다. NHPI 성소수자 성인의 36% 및 NH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23%가 현재 흡연 중이라고 보고하고, NHPI 성소수자 성인의 16% 및 NH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5%가 폭음을 한다고 보고한다.
- 전반적으로, 더 많은 AAPI 성소수자 성인 및 비-성소수자 성인이, ‘응답자들이 지난달에 나쁜 건강상태로 인해 활동제한을 경험한 일수’로 정의된, 경증 및 중증 장애가 있다고 보고한다. NHPI 성인 중에서, 성소수자 남성(31%)은 NHPI 비-성소수자 남성(17%)보다 경증 장애(‘지난 달 나쁜 건강상태로 인해 1~14일 동안 활동제한을 경험’한 것으로 정의)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은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에 비해 천식 및 당뇨, 암, 고혈압 등 몇몇 심각한 건강 상태를 진단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. 그러나, 이 차이는 주로 NHPI 성소수자 성인의 이들 상태에 대한 높은 유병률에서 기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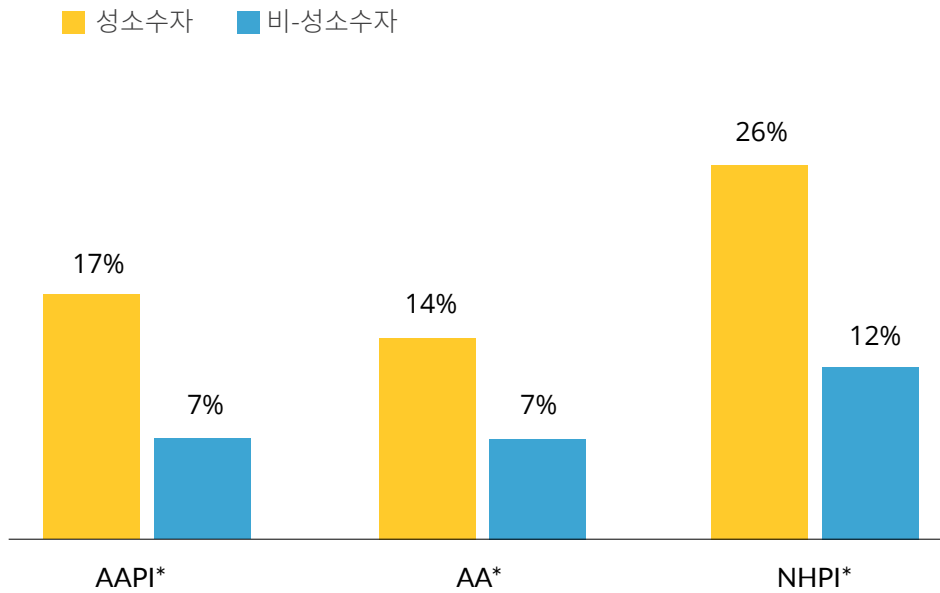
## 의료 접근성

- AAPI 성소수자 성인은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에 비해 건강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. AAPI 성소수자 성인의 13%가 보험이 없는데, 이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10%와 비교된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(9%)은 AAPI 비-성소수자 성인(4%)에 비해 메디케이드(Medicaid)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여성의 경우, AA 성소수자 여성의 8% 및 NHPI 여성의 20%가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는데, 이는 AA 비-성소수자 여성의 4% 및 NHPI 비-성소수자 여성의 10%와 비교된다.
- AAPI 성소수자 부모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보다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자녀를 양육하는 AAPI 성소수자 성인의 12%(여성의 경우 17%)는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는데, 이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5%(여성의 경우 6%)와 비교된다.
- AAPI 성소수자 성인의 약 3분의 2(63%) 및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약 3분의 2(67%)는 개인 주치의를 두고 있다. 그러나, NHPI 성소수자 성인(59%)은 NHPI 비-성소수자 성인(69%)보다 개인 주치의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.

## 차별 및 스트레스 사건

- AAPI 성소수자 성인은 AAPI 비-성소수자 성인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. AAPI 성소수자 성인의 17%는 “당신은 항상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”라는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AAPI 비-성소수자 성인의 7%와 비교된다.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NHPI 성소수자 성인(26%)과 NHPI 비-성소수자 성인(12%)에서 특히 높았다.
- 다수의 AAPI 트랜스젠더 성인은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. AAPI 트랜스젠더 성인의 71%는 (다른 사람들보다 덜 정중하게 대우를 받는 것 등의) 일상적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고, 56%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으며, 63%는 언어적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. AAPI 시스젠더 LGB와 비-LGB인 이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.
- 많은 AAPI 트랜스젠더 성인은 재정 및 일자리 관련 스트레스도 보고했다. 80%는 만성적인 재정 및 일자리 관련 스트레스를 보고했고, 28%는 해고나 고용거부 경험을 보고했으며, 23%는 직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나 승진이 거부되었다고 보고했다. AAPI 시스젠더 LGB와 비-LGB인 이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.

“당신은 항상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”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은 AAPI 성소수자 및 비-성소수자 성인의 비율(%)



참조: \* 는 성소수자 성인 및 비-성소수자 성인에 대한 추정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.

## 회복력

- AAPI 트랜스젠더 성인의 다수(78%)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보고했다.
- AAPI 트랜스젠더 성인의 절반 미만(41%)이 AAPI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보고했다.
- AAPI 트랜스젠더 성인의 약 절반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지지받는다고 느끼며, 사회적 안녕감을 느낀다고 보고했다.
- AAPI 시스젠더 LGB와 비-LGB인 이들에 대해서는 회복력의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.

국가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에 더해, 우리는 미국의 각 지역(서부, 북동부, 남부, 및 중서부)별로 몇몇 주요 결과에 대해 AAPI 성소수자 성인과 비-성소수자 성인을 비교했다. 전반적으로, 각 지역 내에서 확인된 패턴은 우리가 미국 전역에 대한 결과에서 발견한 것을 반영한다. 구체적인 지역 분석 결과는 이 보고서의 39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## 번역

전문번역업체 Paragon Language Services 이 이문서를 영문에서 한국어로 번역함.

번역 리뷰어: 이호림

<sup>i</sup> Conron, K.J., Goldberg, S.K., (2020). Adult LGBT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. The Williams Institute, UCLA, Los Angeles, CA.

<sup>ii</sup> LGBT Demographic Data Interactive. (January 2019). Los Angeles, CA: The Williams Institute, UCLA School of Law.